

# 전남 전원마을 조성 부실 투성이 '예산낭비'

### 기반공사후 2년 지난 14곳중 6곳 주택건축 50% 미만

### 2곳은 건축률 0%... 조합장이 고가 전매 이익 편취도

도시민 유입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부실 투성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의 105곳의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가운데 39곳이 집중된 전남도는 관련 시·군을 상대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2009년 역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 중인 '전원마을 조성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지구에서 373억원이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남·전북·강원·충청·경상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9~10월 이들 지역에 속한 20개 사업지구를 조사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105개 전원마을 지구에 모두 2012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으며, 기반시설공사를 마치고 1년 내에 주택 건축을 완료하도록 하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현장조사를 벌여 현재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지 2년이 지난 전원마을 사업지 47곳 중 26곳의 주택 건축률이 50%도 채 안 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215만㎡의 부지에 900억7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전남의 경우 39개 사업지구의 가운데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지 2년이 지난 14곳 중 6곳이 주택건축률이 50%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광양 목백지구와 함평 금덕지구는 건축률이 0%였다.

조사결과 전남지역의 한 군의 모 지구는 마을정비조합장이 개인 명의로 전원마을 사업지구 토지를 ㎡당 6만원에 매입한 뒤 입주자들에게 15만여원에 팔아 차익을 챙겼으며, 또 다른 군의 경우 보조금 10억원을 집행해 기반시설을 닦았으나 당초 토지 소유자가 사업부지에 6억5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는 지구도 있었다.

또 전남을 포함해 전북, 경남 등 6개 지구 49명의 입주예정자가 36억원의 전매 행위를 했으며, 차익은 최고 5.2배에 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주택의 모양과 건축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보니 사업부지의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공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지자체가 이런 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광역지자체 및 시·군 등 각 행정기관들이 전원마을 관리가 부실한 지 알면서도 새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등 예산 낭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주장이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와 관련된 해당 지자체의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하고, 서류 조작이나 전매 등 불법 행위를 한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결과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시에서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선값에 주택을 공급, 농촌 인구 증가와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문순태 칼럼

평생 책을 읽고 책을 쓰면서 살아온 나에게 책은 내 인생의 스승이자 지양 분이며 영혼의 생과 같다.

지식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고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해주었다. 그러므로 한 권 한 권 책을 대할 때마다 사뭇 순결해지고 경건해진다. 저자가 영혼을 쥐어짜가면서 열정을 바쳤을 아름다운 노고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그래서 나는 책이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다.

50년대 말, 문학의 길로 들어섰을 때, 나는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았다. 주말이면 도서관을 찾아다니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월북작가 이태준의 <문장강화>를 비롯하여 이기영의 <고향> 등을 양동 고서점에서 발견했을 때는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어렵게 홍명희의 <임꺽정> 한 절을 구하고 며칠 동안 잠자는 것도 잊고 눈이 벌개지도록 읽었다.

그 시절에는 소설집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잘해야 한 달에 소설집 한 권

람은 자신의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른다 고 하지 않던가.

얼마 전 일본의 한 작가가 "한국은 압축성장으로 많은 발전을 했지만 죽어도 일본은 못 따라온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한 말에 부끄러웠다.

지난달 나는 전남도립도서관이 주관하는 '지혜의 샘 인문학강좌'에 다녀왔다. 밥인도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에게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2012년에 개관한 전남도립도서관은 짧은 역사인데도 12만 권의 장서가 있다.

아직은 타 지역 도서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도립도서관은 '독서가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 인프라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도서 확충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나가츠카야키라 교수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의 책 1만 5000 권을 기증받아서 가지런하게 진열해 놓았다. 그는 평생 근대일본의

## 도립도서관의 책사랑 운동

이 출판될까 망가졌으니까,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가 나왔을 때는 첫 문장부터 외우기 시작했다.

광주에 하나뿐이었던 시립도서관에는 장서가 겨우 2~3000권 정도였는데, 그나마 대여가 되지 않아서 나는 틈틈이 이곳에 가서 원고지에 필사를 하곤 했다. 그 무렵 김동리·황순원 선생의 소설집을 거의 필사했다.

책을 좋아했던 나는 결국 한 권의 책 때문에 소설가가 되었다. C.D 루이스의 <시학입문>을 읽고 시인이 되고 싶었다. <시학입문> 서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왜 시를 씁니까?' 라고 묻는다.

이때마다 나는 '무지개가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시를 쓴다' 라고 한 대목이 내 영혼을 흔들었다.

그러다가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를 읽고 인간사랑 메시지에 감동되어 소설가가 되기로 작정했다. 이처럼 책은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

지금은 하루에도 수십 권의 신간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려진 책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버려진 것만 같아 마음 아프다. 책을 사랑하지 않은 사

조선철 박사 연구 등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 침략 사실규명에 진력하고 있는 '일본의 양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학자이다. 전남도립도서관은 나가츠카야키라 교수의 도서 기증을 계기로, <현대일본의 역사인식>, <시바료타로의 역사관>을 한글판으로 번역 출판하기도 했다.

전남도립도서관에서는 책도 출판한다.

얼마 전 나는 <책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라는 칼럼에서, 우리 지역 대학 교수들이 매년 2~30명씩 정년을 하는데 책을 집으로 가져가지 못해 버리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 것을 안 전남도립도서관에서는 2014년부터 별도로 넓은 공간에 기증자 코너를 만들어 정년하는 교수들의 책을 기증받아 진열하기로 했다. 저명한 학자나 작가들의 손때 묻은 오래된 책들이 도립도서관에 가득차면 이것 또한 우리지역 명품이 되지 않을까.

도서관은 그 지역 문화의 바로미터이고 지역민의 수준을 말해준다. 그래서 선진국에는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이 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마을 도서관 공이 크다."고 한 스티브 잡스의 말이 떠오른다.

<소설가>

## 광주도시철도 2호선

### 시의회, 긴급 현안 질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놓고 찬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시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

시의회 김민중(새정치·광산 4) 산업건설위원장은 19일 제23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긴급현안 질문을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안질문을 위해 윤정현 시장을 비롯해 행정 및 경제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교통건설국장 등에 대한 출석을 17일 요구했다.

그는 최근 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도시철도 2호선 재정 전망분석 자료에 대한 타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시국선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반대하는 민주수호 광주지역 시국선언 참가자들이 1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YMCA 무진관에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철회와 헌법재판소의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 ■ 행감 인물

### 월드컵 주차장 특혜 지적 ... 시민목소리 의정 반영

#### 임택 광주시의원

제7대 광주시의회에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임택(새정치·동구 1) 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시민의 현장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잘 반영했다는 것이다.



조선 시의원이긴 하지만, 재선의 동구의원 경험을 갖고 있는 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롯데마트 월드컵경기장 주

차장 협약 내용을 분석해 협약 특혜 문제를 파헤쳤고,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준비 부족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임 의원은 시장질문을 통해 윤정현 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임 의원은 "낙하산 '관피아' '정피아'로 불리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시민들로부터 너무 많이 들었다"면서 "이러한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 경제·체육분야 두각 ... 대안까지 함께 제시

#### 김태균 전남도의원

"공무원도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뒤 함께 고민해보자는 태도로 임했습니다."



민선 6기 초선으로 지난 10일부터 첫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김태균 의원(51·광양 2)은 꼼꼼하고 치밀한 준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관광문화위 소속인 그는 특히

경제와 체육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인터넷 검색도 하고 관련 서적도 읽으면서 첫 행정감사를 기다렸다"며 "기본에 충실하지는 생각으로 자정 넘어까지 질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계훈련된 유체와 관련 인연 수에 따라 매년 '관박이'처럼 과장되는 경제유발효과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남도민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전남도의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윤현석기자 chadol@

연말연시 모임·피로연·돌 회갑 등

# 등대바다

(주) 해진수산 (주) 창진수산 전국 유통 직영점!

등대바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938-2 (062)682-9688 정일영 010-2604-7223

해진수산 전남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061)552-7223

창진수산 전남 완도군 고금면 내동리 (061)554-4631

대량 저가 판매 전복 연말 선물 Set

예약문의 (062)682-9688 ※300석 완비, 주차장 완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히터,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씨온탕소독기

##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의 2중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의 2중

원적외선 히터의 11중

대형 제습기의 2중

이동식 에어컨의 11중

범씨 온탕 소독기의 5중

무등산업 (062) 372-7585 010-3601-7701 사·군 취급점 선착순 모집